

다구를 찾아서 ② 소대형

천금으로도 가질 수 없는 차호

자사호(紫沙壺) 연원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춘추전국시대 월(越)나라 대부 범려(范蠡)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이성(宜興, 의흥)에 은거해 (서시와 함께) 자사호를 만들었다. 그러자 이곳에 범씨들이 모여 살게 됐다. 지금도 이성에서 활동하는 자사호 공예인 중에는 범씨 성을 가진 이들이 많고 '서시호(西施壺)'라는 대표적인 자사호 형태가 있어 범씨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성과 관련 있는 인물로는 송나라 시인 소동파도 있다. 그는 말년을 보내기 위해 이성에 땅을 사왔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 때 어느 관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동파서원(東坡書院) 자리에 소동파를 기리는 사당(祠堂)을 세웠다. 그 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화당이 됐다. 현재 60세가 넘는 이성의 원만한 자사호공예인들 대부분은 이

형을 관아로 불렀다. 소대형은 도리어 조악한 차호를 만들어 보냈다. 크게 화가 난 지현은 소대형을 잡아다가 죽을 정도로 곤장을 쳤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소리하나 내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지현은 험박과 재물로 그를 회유했으나 끝내 차호를 얻어내지 못했다. 소대형은 차호의 진가를 모르면서 명성이나 돈으로만 소유하려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자사호는 생산한 요(窯)로 그 품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제작기법과 기술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드는 기법이 비밀에 부쳐진다. 그래서 자사호 제작법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로 전승(傳承)되기 때문에 다른 가문 출신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대대로 자사호 제작을 가업(家業)으로 삼고 있는 집안에는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묵힌 니료(泥料)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팔괘속죽호(八卦束竹壺) 청 소대형(靑大壺), 중국 남경박물관(南京博物院) 소장, 높이 8.5cm 구경 9.6cm.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1960년대 동파서원은 소학교로 개편됐고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남아 있다. 유물로 남아있는 다구(茶具) 중에서 자사호는 만든 사람과 그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대형(大壺)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청나라 가경에서 도광 연간(嘉慶~道光, 1796~1850)에 활동했던 이성 상인리(上岸里, 현재의 상원촌(上袁村)) 사람이다. 소대형은 어렸을 적부터 도예인(陶藝人)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양광년(楊彭年)의 자사호가 정교했다면 소대형은 질박함이 묻어나면서도 기품 있고 따스하며 은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소대형이 만든 차호는 '천금으로도 가질 수 없는 차호'(一壺千金 幾不可得)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일화가 전한다.

어떤 지현(知縣-관직명)이 소대형의 차호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의 값을 많이 내겠다"며 소대

공예인보다 훨씬 유리했다. 팔괘속죽호(八卦束竹壺)는 소대형의 대표작으로 용두일곤죽(龍頭一鬚竹)이라고도 부른다. 자갈색으로 니료의 재질이 세밀하면서 윤택하다. 호의 문양은 용, 대나무, 팔괘(八卦)가 결합돼 있다. 호의 몸통은 64개의 대나무로, 호의 다리는 사방에 8개씩의 대나무로 조형돼 있고 몸통의 위와 아래가 일체형으로 자연스러운 조화가 일품이다. 호 뚜껑에는 복희(伏羲)씨의 팔괘방위도(八卦方位圖), 푸경 손잡이에는 태극도(太極圖), 호 부리와 손잡이는 용의 형상으로 장식돼 있다. 제작 솜씨가 정밀하고 문양의 의미가 함축적이면서도 깊어서 자사예술의 극품으로 칭송되고 있다. 현재 중국 남경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후대 도예인들의 모방작(模倣作)이 많은 기형(器形)중 하나이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41 봉정암



몇 해 전, 부산 불광사의 '10보 1배 순례단'을 따라 봉정암에 올랐었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도량이지만 쉽게 가지지 않는 도량이기도 하다. 얼떨결에 따라 나선 좋은 기회였다. 길이 시작됐다. 설악산 해발 1224m. 백담사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오세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에 본격적인 10보 1배를 시작했다. 봉정암

까지는 4km, 걸어서만 가기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 마지막 관문인 '갈딱고개'. 마음과 몸이 서로를 버리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거칠게 숨을 토해내며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기어오르자 마침내 봉정암이 눈앞에 나타났다. 올랐다. 모두는 해발 1224m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를 만나고 있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3도 불과상방역불토유국도명왕살법장

붓다는 사리불에게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했다. 삼화는 그러한 내용을 묘사한 것이며, 전각을 중심으로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광명과 구름에 쌓여있는 여러 전각의 모습은 이층의 목탑 구조 형태이다.

전각 주변으로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구름의 모양을 도상화해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전각의 뒤편에 광배의 모습을 판화의 음·양각의 기법을 대비시켜 화염문으로 장식했다. 화려한 광배의 모습, 보리수와 구름을 융합시킨 모양을 화면에 아름답고 긴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극락이요,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호가 아미타이사라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아, 저 세계를 여지하여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는가? 그 세계에 있는 증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고 다만 즐거움만 누리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극락(極樂)은 '지극히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뜻이며, 종교적이고 절대적인 깨달음의 있는 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극락을 중국에서는 안락(安樂) 혹은 안양(安養)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바티(Sukavati, 樂이 있는 곳)로 번역한다.

극락세계를 주재하시는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무량수불(無量壽佛),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부른다.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미타바(Amitabha, 즉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가진 것(無量光)과 아미타유스(Amitayus,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진 것(無量壽)이라는 두 종류의 원명의 음사(音寫)이다.

아미타불은 원래 법장(法藏)이라는 비구승이었는데, 48개의 큰 서원을 세우고 오랜 수행 끝에 서원을 모두 이룬 뒤 부처가 돼 극락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죽음을 이룬 자가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반야운선을 보내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공덕을 실천하고 계신 부처님이다.

우리는 이제 고해의 세계인 현실의 고통만 탓할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해도 즐겁고 괴로움이 끊어지고,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불자들이 돼야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화박물관 관장)



교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 3도 불과상방역불토유국도명왕살법장엄 (佛上方佛土有國土名曰說法莊嚴). 덕주사판, 1572년경, 반각(半角) 28.2×21.0cm.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 양초

한봉밀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031-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